

한국 원자력의 어제와 오늘 ⑤

佛 ‘극단조치’ 위협에 울진원자로 2기 도입

글 | 이창건 _ 전력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



울진원전 1-6호기 전경

오래전 한국과 프랑스는 울진원자력발전소 도입에 앞서 굉장한 신경전을 벌였다. 프랑스는 한국이 원자력발전소 입찰 때마다 자기네를 “미국의 들러리로만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항의했고, 울진원자력발전소 입찰에서 “또다시 그렇게 하면 프랑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한 것이다. ‘극단적인 조치’란 UN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20여 개국이 결탁하여 북한을 지지할 것이라는 폭탄선언이었다.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고위층으로부터 최고의 저녁 대접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폭탄선언을 들은 필자 일행은 밥맛이 푹 떨어져 더 이상 저녁을 먹을 수 없었다. 필자는 귀국 즉시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고, 그 후 국무총리가 프랑스를 예방한 다음 몇 번의 교섭 끝에 결국 프랑스에서 더 좋은 원자로 2기를, 더 좋은 조건으로 값싸게 도입하게 되었다. 그것이 울진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이다.

한국인은 인육(人肉) 먹는 야만인?

얼마 후 프랑스 원자력청장 일행이 한국에 왔다. 한국측은 프랑스에서의 환대에 대한 답례로 최고급 호텔 식당으로 그분들과 주한 프랑스 대사를 모셨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 한 명이 너무도 무례하게 굴고 분위기를 흐려놓아 판이 깨지고 말았다. 관례대로 포도주가 나오자 그날의 주빈인 원자력청장이 ‘저 사람은 포도주 감식전문가에 못지않다’며 자기 일행 중 한사람에게 와인 테스트를 의뢰했다. 포도주를 맛본 그 사람은 “김이 썼다”고 하더니 그 포도주의 원산지 출신이라는 동료에게 맛보라고 했는데 그도 역시 “김이 썼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포도주를 가져오라 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비싼 포도주의 뚜껑을 따놓고 안

마시면 어떻게 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포도주 값을 낼 터이니 걱정 말고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그는 역지를 부렸다. 우리는 호텔 지배인과 사장을 찾아가 국가적 망신이니 빨리 수습해 달라고 해서 겨우 마무리되었다. 그런데도 그 종업원은 손님들에게 계속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하여 그날의 연회 분위기는 싸늘하게 가라앉고 말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프랑스 대표단 중 한사람이 입을 열었다. “한국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다지요?” 아마도 ‘너희들은 개고기나 먹는 야만인’이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너무도 불쾌한 언동이지만 호텔 종업원의 불손한 태도가 그런 말이 나오도록 만들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자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 분이 맨 끝자리에 앉은 필자를 가리키며 “아마 저 사람은 먹을지도 모른다”며 한국인의 허물을 몽땅 필자에게 뒤집어 씌워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 했다. 그때 배달민족을 대표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 필자는 “남이 사주면 먹을 때도 있다”는 말과 “또 왜 먹느냐”는 질문에 “개고기는 사람의 세포와 비슷해 흡수가 잘돼 건강에 좋다는 설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프랑스 관리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렇다면 비슷한 것보다는 똑같은 것을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이야말로 프랑스식 깔보기 발언이고 “너희들은 사람 잡아먹을 종자”라는 모독적인 언사였다. 흥선 대원군 시대의 병인양요(1866년, 고종 3년)의 원인을 제공했던 병인박해 때 우리 조상들이 프랑스 신부 12명 중 아홉명과 8천여 명의 천주교도들을 때려죽인 옛일을 알고 있는 듯 그는 너무도 태연하게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이었다. 140년 전 우리 정부에서는 8천여 명의 천주교

도를 차단했다고 발표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몇 만 명에 이른다 했고, 프랑스 신문은 거의 10만 명을 학살한 것처럼 보도했다. 그래서 프랑스인 대부분은 아직도 프랑스인 신부 아홉명과 함께 자기네가 전도한 몇 만 명의 천주교도 학살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그날 저녁 만찬은 그렇게 싱겁고 불쾌하게 끝나고 말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내세우며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는 피압박 민족의 독립을 부추겼던 것은 유럽 열강과는 달리 미국엔 식민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힘을 얻은 우리 조상들은 자신감을 갖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전국 규모의 독립만세를 평화적으로 부르지만 하면 국제정세에 힘입어 일본의 울가미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며, 총칼에 얻어맞는 한이 있어도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한다는 독립선언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야만적인 한국 민족에게 독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뒤에서 강하게 훈수를 둔 프랑스의 횡방 때문에 독립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것은 병인박해의 피해를 잊지 못한 프랑스의 보복의 결과였다는 어느 대사의 얘기를 듣고 그럴듯한 견해라고 생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인과응보가 아니었을까. 필자는 우리 고조부 때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개고기 먹는 집단의 대표자, 더 나아가 사람 잡아먹을 야만인의 표적으로 취급받은 것이다.

테니스 시합 이겨 한국 합의문안 대로 채택

한국이 프랑스에서 울진원자력발전시설(100만 kW급 경수로 2기)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다음 두 나라는 ‘한·불 원자력 쌍무협정’에 의거하여 원자력 기술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각각 10명 안팎의 한·불 양국 전문가로 구성되 회의는 두 나라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했다.

첫번째 회의장소는 서울이었다. 4일간의 현지답사 후 두 나라 대표단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모여 합의문 작성에 들어갔다.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한 합의문 기초 작업은 양측 모두 서로 자기네 원안 채택을 주장하는 바람에 입씨름만 계속하다가 퇴근시간이 되었다. 그때 누군가가 프랑스 측의 수석대표인 ‘그라프’ 원자력국장의 테니스 실력을 자랑하면서 그는 테니스 코트가 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어린 시절부터 코치 밑에서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테니스를 아주 잘 친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럴 바엔 차라리 두 수석대표가 테니스 시합이라도 해서 이기는 쪽의 안을 합의문으로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양측은 각기 별도의 모임을 가진 다음 “그렇게라도 하자”고 합의하게 되었다. 그때 필자가 그 제의에 응한 것은 그라프씨는 육중한 몸집의 사나이인지라 잘 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 시합은 훌쭉이와 뚱뚱이, 보통사람과 거인, 한국인과 프랑스인간의 대결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라프씨의 발이 너무 커 아무리 큰 운동화를 사와도 맞는 게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원자력연구소에서 발이 제일 큰 선수의 운동화를 빌려다가 운동화의 코끝에 큰 구멍을 뚫어 ‘그라프’씨의 엄지발가락이 그 구멍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운동화를 신게 하는 방법이였다.

그라프씨는 과연 소년시절부터의 선수답게 공을 잘 쳤고 그래서 그는 초반에 많이 이겼다. 그러나 뛰는데 소질이 있는 필자는 이길 생각보다는 육중한 몸매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많이 뛰게 하여 지치게 만든 다음 후반에 가서 결판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공을 이리 주고 저리 넘기고 이쪽에 빼고 저리로 보내며 지구전을 폈다. 그 작전은 맞아 떨어져 필자가 간신히 이겼고, 결국 한국안 합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다. 즉 필자는 여러 명의 프랑스인과 100여 명의 연구소 직원이 지켜보는 국제시합에서 태극기를 휘날린 것이다.

시합 후 운동화를 벗은 거구의 그라프씨의 발은 온통 물집투성이였다. 발이 부르튼 것만도 억울한데 시합에 저 합의문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안 되게 된 것이 분해 참을 수 없어서인지 그는 합의문에 서명하는 즉시 연구소를 떠나고 말았다.

그 시합에서 자극받은 필자는 그 후 테니스 연습을 열심히 했고 그 보람으로 다음해 연말 100여개 단체가 가입해 있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의 전국과학기술자(의사, 약사 포함) 테니스대회에 나가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그리고 다음해에 필자는 앞코 위쪽에 구멍이 뚫린 운동화를 갖고 프랑스에 가 그라프씨에게 그걸 신어야 시합에 응하겠다고 버티었다. 그러나 그라프씨가 완강하게 거절해서 각자 자기 운동화를 신고 뛰었다. 그런데 자기 신발에, 자기 나라 구경꾼이 응원하는 자기네 코트에서 뿔 그라프씨에게 필자는 또 이겼는데, 그것은 그간의 집중훈련 덕이었다. 물론 이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겼으나 합의문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시합이어서 그 경기는 친선게임이었던 셈이다.

이듬해에 한·불원자력 기술개발 공동위원회가 프랑스에서 열

렸을 때 한국 대표단은 프랑스의 주요 원자력시설을 돌아보았다. 그중 특히 프랑스 중부도시 리옹에 안내 받은 것은 우리 나라의 창원처럼 그 곳에 중전기와 원자력 주요 기기 생산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까닭이다. 미식가들은 세계에서 프랑스 요리 맛이 가장 좋은 곳으로 벨기에와 더불어 리옹을 꼽는다. 산업시찰 후 한국대표단은 그곳의 고급음식점에 마련된 만찬에 초대받아 최고급 포도주에 맛있는 저녁을 먹었으니 최고의 프랑스 음식을 대접받은 셈이었다.

처음에 프랑스 대표의 환영사에 이어 앞으로 한·불 양국이 나아가갈 방향과 남은 일정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답사로 필자가 감사 표시와 함께 프랑스에 대한 덕담을 늘어놓았다.

프랑스식으로 한국인 모독 응수·‘개똥’ 연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프랑스의 원자력 선진기술뿐 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학문적 깊이도 배우기를 바란다. 프랑스는 위대한 나라다. 이 위대함은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이룩해 놓은 것이라고 배웠다. 프랑스가 인류 역사의 정진계와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왔음은 세기적이고 세계적인 인물들의 업적만 봐

도 알 수 있다.

이 나라의 문화적 토양이 이처럼 비옥한 것은 그간에 배출한 노벨수상자 수와 그들의 뛰어난 학문적 공헌이 이를 말해준다. 예를 들어 아무리 외국에서 온 가정교사 출신의 처녀라 할지라도 프랑스 과학계의 영향을 받아 발효돼 최고 대학의 저명교수로 변신하게 되고 나아가 노벨상을 들썩이나 받게 되지 않았는가(퀴리 부인). 또 섬에서 태어난 키 작은 올챙이배 촌놈을 어떻게 그런 세기적 영웅으로 키웠는지 우리는 그 비결을 알고 싶다. 심지어 도둑놈도 여기서 유능한 시장이 될 수 있음을 빅토르 위고가 그의 작품 ‘레미제라블’에서 그려내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철학 서적과 문학 작품들을 읽고 프랑스인이 개발한 과학적 원리를 배우며 학창시절을 보냈다.

프랑스는 위대한 예술국가이다. 그래서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 예술가들도 구름 떼처럼 모여 들어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피카소, 달리, 칸딘스키 등이 국경을 넘어 프랑스에 와 천재성을 발휘하며 대성한 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이 나라는 유능한 인재를 끌어 들이는 전자석의 흡인력 같은 마력이 있는 것이 분명

“원자력기술은 인간 이성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야”

다음은 2001년 9월 14일 파리에서 개최된 프랑스 원자력학회장 초청만찬에서 국제원자력학회 협의회(INSC) 회장 겸 대한민국 원자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이창건 박사(필자)가 답례사로 발표한 내용. <편집자>

“**전** 세계에 산재하고 있는 국제원자력학회 산하의 10만 회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프랑스 원자력학회와 부샤르 학회장님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난 9월 11일 미국에서 일어난 불상사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꼭 오기로 약속한 바 있는 저의 INSC 총무 겸 재무담당인 MIT의 앤드루 카다 교수와 이스라엘 원자력학회 회장인 나의 40년 친구 시몬 이프타 교수의 부득이한 불참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양해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편 세계 무역센터 폭파 이전에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미국

원자력학회장을 비롯한 미국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원자력기술이 정의와 보편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 이성의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원자력기술과 특수핵물질이 불량국가나 광신적 종교 신봉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계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각자는 국제원자력학회 협의회를 주축으로 하여 국제 협력과 상호보완 및 정보교환에 이바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화와 예술의 세계 수도인 파리에 와 있습니다. 옛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인처럼 행세하라 했으므로 우리가 파리에 온

하다.

이처럼 프랑스는 천재의 나라이다. 천재는 고독을 사랑하고, 홀로 사색에 잠기고, 산책할 때는 천천히 신중하게 걷는다. 또 입을 꼭 다물고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발끝을 응시하며 걷는다. 반면 바보는 이빨을 드러내 보이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으며 두 팔을 휘저으며 빨리빨리 걷는다. 바보의 눈의 초점은 흐려있으나 천재의 눈은 그와는 정반대다.

바보가 하늘을 보고 웃으며 걷는데 반해 천재는 어째서 심각한 표정으로 발끝을 보고 걷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이 위대한 프랑스에 와서 알게 되었다. 그것은 프랑스의 거리와 산책로에는 어디에나 지뢰가 깔려있어 그것을 밟지 않으려는 자기보호본능이 작용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인 중에는 애견가가 많아 개들이 어디서나 똥을 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에서 개똥을 밟지 않으려고 주의하며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사람이라 해도 길을 잘 살펴보며 걸어야 하므로 프랑스 사람들을 천재로 만들어주는 공로자는 바로 프랑스의 '개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모두 프랑스를 천재의 나라로 만드신 이 나라

의 Mr. Dog, Mrs. Dog, Miss Dog을 위해 건배합시다! 다같이 건배!"

답사가 끝나자 한국 대표들은 모두가 조마조마해 하며 웃었다. 프랑스인들도 마지못해 웃었다. 다만 한 사람만이 천재처럼 한국 답례자를 응시하며 웃지 않았는데 그분이 바로 '한국인은 개고기보다는 사람고기와 똑같은 것을 먹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서울의 연회석상에 앉아 있던 프랑스 대표 중의 한 사람이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개고기에는 개똥' 원리에 따라 필자는 개고기로 말미암아 망신당한 지 2년 만에 그들에게 카운터펀치를 멋지게 날렸다. 호텔에서 돌아오자 동료들은 "어쩌자고 최고급 요리에 맛있는 포도주까지 얻어 마시고 개똥 이야기를 해서 우리 입장을 거북하게 만들었느냐"며 불평했다. "앞으로 개 같이 물고 늘어지고 개처럼 함부로 무는 보복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필자는 "그것이 서울에서 우리를 개 이하로 모독한 그들의 오만에 대한 프랑스식 답례였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이 개똥 연설 내용은 꽤 오래된 지금도 프랑스 원자력계와 한국 원자력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상 파리지영의 흥내라도 내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보다 더 문화적이고 더 예술적으로 같고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세계적이고 세기적인 명작들을 구경함으로써 우리의 미학적 안목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의 조각품, 건축모델, 그림과 드로잉을 구경하며 거기에 진선미가 깃들여 있음을 엿보았습니다.

특히 모나리자의 신비스러운 미소가 남모르는 희열을 경험한 때 문인지 임신했음을 알리려는 목시적 표현인지 아니면 온 세상을 품에 안고도 남음이 있는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을 연상케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아직도 리자 부인의 눈매와 입술이 우리를 유혹하는 듯합니다. 또한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된 베르디의 리콜레토를 통하여 인간의 열정과 열망이 어떻게 표출되는가도 감상하였습니다. 바스티유 오페라하우스의 건축 조형미와 음향학적인 뛰어남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여기에서는 프랑스 최고의 요리와 최고의 포도주를 대접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우리의 시각을, 바스티유 오

페라관에서는 우리 청각을,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후각과 미각을 즐겁게 하고 고급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혀 대접받지 못한 또 하나의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촉각입니다.

이 문화대국, 특히 예술의 중심지에 왔다가 우리의 오감 중 단 하나의 감각만이 서비스 받지 못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도 섭섭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촉각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계 10만 명의 INSC 회원을 대표해서 제가 2002 미스프랑스와 포옹하는 일일 것인데 아무리 유능한 프랑스 원자력학회장과 유럽원자력학회장이더라도 그 일만은 저에게 알선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난처한 프랑스 주최측의 입장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는 다음 같은 대안을 제시하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여러분, 프랑스학회장의 짐을 덜어 주기 위해 고급 프랑스 포도주가 들어 있는 각자의 프랑스 술잔에 다같이 뽀뽀하며 축배하자는 것입니다. 건배!" 